

코로나19 불안 여전한데... 초·중고 방과 후 수업 어찌하나

'코로나19' 판정을 받은 광주 33번 확진자가 확진 판정에 앞서 초·중·고교생이 많이 다니는 PC방을 이용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여지가 여전한 가운데, 지역 중·고등학교가 이번 주부터 '방과 후 수업'과 '자율학습'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초·중·고 전 학년이 등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선 고3을 시작으로 방과 후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일명 야자)이 재개됐다.

광주에서는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고3부터 방과 후 수업이 이미 시작됐고, 중·고등학교 대부분이 방과 후 학습 준비 상황을

교육청, 학교 자율에 맡겨
광주 대부분 학교 재개 할 듯

코로나 상황 놓고 찬반 논란

교직원 피로도 누적 우려도

고려해 학교 자율적으로 방과 후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지침에 따라 이번 주 중에 대부분의 학교가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등학교의 야간 자율학습은 시교육청의 '당분간 금지' 방침으로 공식적으로

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에서도 고3 등교수업이 이뤄진 이후 일반고교 91곳 대다수가 방과 후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코로나19 방역이 철저히 완비되고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학교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학교장의 판단 아래 보충수업을 실시할 것을 안내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지역 일반고교 80% 이상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어 이들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보충수업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고3의 경우 거의 모든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과 부분적인 야간자율 학습이 이뤄

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과 대전 지역의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광주에서 33번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습 결손 상황을 걱정하면서 방과 후 수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 여지가 여전한 만큼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늘고 광주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집단시설에 대한 방역이 잘 되고 있지만 무중상

으로 감염 등 후시나 문제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고3 수험생을 둔 한 학부모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사일정 지연으로 학습 시간 손실이 발생해 걱정이 많다"며 "대학진학 등을 위해 방과 후 학습과 야간자율 학습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과 후 학습 재개 움직임에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여름철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와 교직원들의 장기간 방역지도와 연장수업에 따른 피로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낸데다가 학교

들의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지침을 알렸다"며 "희망 학생에 한해서 방과 후 수업과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도도 낮아진 상태에서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는 "방과 후 학습을 학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는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있다면 진행하지 않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수업과 방역지도에 따른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꼭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문 닫은 일곡동 마트 광주서 22일만에 코로나19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21일 광주 33번 확진자가 다녀간 북구 일곡동 한 마트가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양산을 쓴 주인이 휴업안내문을 읽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교육청, 조선산업 인력 양성 팔 걸었다

7개 기관과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전남도교육청이 지역 특화산업인 조선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 19일 전남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전남도,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본부, 전남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현대삼호중공업(주), 대한조선(주) 등 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 교육청은 이번 협약으로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들의 조선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참여기관들과 함께 조선업체 구인난과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 협력하여 산·학·관 거버넌스를 구축키로 했다. 또 지역 산단에서 필요한 인

력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학과개편, 전남혁신형 기업맞춤교육(JOBs)운영 등을 통해 전남 학생들이 지역에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용석 전남도교육국장은 "전남 직업계고 학생들이 전남에 있는 조선업체에 취업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협약을 계기로 조선 분야 취업의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 교육청은 지난 4월 영광대산단 e-모빌리티 인력양성을 위해 영광공고 e-모빌리티와 학과 개편을 추진했고, 영광군과 e-모빌리티연구소, e-모빌리티기업협의회와 함께 e-모빌리티 우수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동구 민선7기 평가

'단소리 쏘소리' 토론회

광주시 동구가 민선7기 2년을 맞아 지역주민들과 구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1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지난 19일 산수동 푸른마을공동체센터 대회의실에서 민선7기 2년 평가를 위한 '단소리 쏘소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함께 걸어온 2년, 함께 나아갈 2년'이라는 주제로 향후 구정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기존의 공무원들만 참석하는 성과위주의 보고가 아닌 각 분야의 전문가, 마을·청년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다는 게 동구의 설명이다.

동구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사전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하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서는 2년 동안 구정 운영을 잘했다는 응답이 86.5%였으며, 가장 잘한 정책사업 분야로는 도시환경(29%)이 꼽혔다.

앞으로 역점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문화관광권역 도시설관 활성화(38.6%), 창업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33.2%), 사람중심 인문도시 조성(30.2%) 순으로 조사됐다.

토론회 현장에서는 ▲마을사랑채를 기반으로 한 동구만의 주민자치회 구축 및 전환 ▲민선7기 공약사업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사전 분과회의 개최 등 향후 2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 남구, 이면도로 '쓰레기 해결사' 뜬다

우리동네 청결사업 추진

공공 일자리 200명 모집

광주 남구는 오는 7월부터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빈터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동네 청결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1일 남구에 따르면 우리 동네 청결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와 소외계층의 생활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 안정형 긴급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칫거리인 쓰레기 투기 지역에 대한 도시미관 개선 목적으로 추진된다.

남구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광주시에서 실시한 '코로나 대응 생활형 공공 일자리 사업'에 함께 할 관내 주민들을 모집했으며,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관내 구직자와 취약계층 주민 약 200여명 가량이 우리 동네 청결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참가자들은 오는 7월부터 4개월 동안 관내 16개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돼 불법 쓰레기 많이 배출된 공한지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청소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 정화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 불법 쓰레기 투기 다발지역에 대한 감시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활동, 분류되지 않은 상태로 배출된 재활용품에 대한 재분류 작업 등도 하게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흡연 폐해 더 명확하게'... 담뱃갑 경고 그림 9종 교체

담뱃갑 경고 그림 12종 가운데 9종이 오는 12월부터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할 3기 경고 그림 12종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2016년 12월 23일 '경고 그림 표시 제도'를 시행하면서 2년마다 그림을 교체하기로 했다. 동일한 경고 그림으로 인해 경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새 경고 그림은 기존 12종 중 9종으로 폐암과 구강암 병변, 치아 변색 사진 등을 이용해 흡연의 폐해를 더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심장질환, 조기 사망, 임산부 흡

연, 간접흡연 등도 경고 그림의 주제로 선정됐다.

'후두암'과 '성기능 장애', '결핵형 전자담배' 등 기존 그림 3종은 효과성과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유지된다.

담뱃갑의 좁은 면적을 반영해, 문구도 간결하게 바꿨다.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를 '폐암 위험, 최대 26배!'로 줄이는 식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8일까지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고, 이 기간 접수된 국민 의견을 검토해 간접흡연에 관한 그림 1종을 반영했다. 다른 경고 그림과 문구는 행정 예고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연합뉴스

포함 & 힐링이 있는 남원여행

남원의이름

♥ ◯ ♥ **원서어나무숲**
 ♥ ◯ ♥ **지리산 허브방울리**
 ♥ ◯ ♥ **숙박시설 에코롯지**
 ♥ ◯ ♥ **백두대간 트리아우스**

| 숲에서 휴식 운동 서어나무숲 | 허브향기 가득한 지리산허브방울리
 | 생태관광 숙박시설 에코롯지 | 나무 위 숙소 백두대간 트리아우스 | 천혜의 절경 지리산백사골계곡

남원시
 www.namwon.go.kr